

제63차 ACPAC WORKSHOP

(출장 보고서)

(기획팀 김의철)

2014. 6.

한 국 시 멘 트 협 회

1. 출장 개요

- 기 간 : '14. 6. 10(화) ~ 6. 14(토)
- 지 역 : Kuala Lumpur, Malaysia
- 출장자 : 18명
 - 업 계 : 7개사 16명
 - 협 회 : 김영민, 김의철

2. ACPAC 회의 결과

□ 참 석 : 7개국 총 106명

• 인도네시아 5명	• 일 본 19명	• 한 국 18명	• 필리핀 2명
• 대 만 8명	• 태 국 4명	• 말레이시아 50명	

□ '14년 수급 전망 : 세계 경기 회복세에 따라 내수 증가, 수출입은 감소

<'14년 ACPAC 회원국 수급 전망>

(단위 : 천톤, 전년비 %)

	내 수		수 출		수 입	
	물량	전년비	물량	전년비	물량	전년비
한 국	44,000	97.4	10,300	113.8	750	93.8
일 본	48,000	102.2	8,500	97.0	800	101.4
대 만	12,500	102.1	3,700	62.4	1,250	90.7
인도네시아	63,000	103.8	-	-	2,000	56.6
태 국	30,084	100.0	8,235	103.1	-	-
말레이시아	22,105	105.0	2,580	105.0	3,360	104.8
필 리 핀	20,819	107.0	-	-	2,326	104.0
계	240,508	102.1	33,315	95.8	10,486	87.8

주) 회원국별 세부 수급동향은 <별첨 2> 참조

○ 수 요

- '13년 235,677천톤 → '14년 240,508천톤 (전년대비 2.1%, 4,831천톤 증가)
- 한국만이 전년대비 감소하고, 기타 국들은 세계 및 자국 경제 회복세에 따라 국내 수요 증가로 전년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상

○ 수 출

- '13년 34,765천톤 → '14년 33,315천톤 (전년대비 -4.2%, 1,450천톤 감소)
- 자국내 수요증가에 따라 일본, 대만은 감소 예정이나 태국, 한국은 증가 전망
- 특히, 일본의 경우 후쿠시마 원전복구 수요로 장기간 수출 감소 지속 예상

○ 수 입

- '13년 11,942천톤 → '14년 10,486천톤 (전년대비 -12.2%, 1,456천톤 감소)
- 인도네시아, 대만, 한국은 수입 감소 기타 국들은 소폭 증가 전망

○ 수급전망 종합

- 2013년에 이어 세계 경제 회복 기대감과 자국내 경기부양책 등에 따른 국내 수요 증가로 한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가 2014년에도 내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
- 수출입의 경우 2013년에는 증가하였으나 2014년에는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

○ 2014년 회원국 벌크시멘트 내수 가격 동향

- 유연탄 등 원자재 가격 안정화에 따라 7개국 모두 내수가격 변동 없음

	일본	인도네시아	대만	태국	말레이시아	필리핀	한국
가격 (\$/톤)	99.6	83.3	75.4	57.6	103.6	94.0	71.5
증감율 (%)	-	-	-	-	-	-	-

* VAT 제외 가격, 2014년 3월 기준

□ 차기회의 개최지 : 필리핀 (2015년 6.17 ~ 6.18 예정)

국가별 리포트 주요 내용

1. 인도네시아 (2013년 기준)

2015년 Capacity증설계획(Bosowa 3백만, Indo 4.4백만등 총 12백만톤 예정)에 따른 향후 수출가능성 및 공급과잉에 따른 저가수출정책 우려 제기 (예, 베트남)

-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발판으로 2013년 5.8%의 경제성장, 시멘트 산업의 경우 지속적인 정부 Program (인프라구축 및 부동산등)의 지원으로 예산 매년 증가 (3,850억 → 4,380억 루피아, 13.5%↑)
- 2014년 약 15%증가한 4,980억 루피아 예상, 2013년 시멘트 소비 전년대비 5.6%증가한 58백만톤 → 2014년 6%증가한 61.5백만톤 예상
- 생산 : 56.1백만톤(시멘트) 9개회사 → 2014년 61백만톤 예상
- 내수 : 60.7백만톤(10.4%증가) → 2014년 3.8% 증가한 63백만톤 예상 (정부주도의 공공공사 중심)
- 수출 : 국내수요의 증가로 인해 수출량 없음
- 수입 : 클링커 90만톤(한국, 베트남, 대만, 태국), 시멘트 2.6백만톤(말레이시아, 베트남, 중국),

2. 일본 (2013년 기준)

최근 국내 가격인상의 경우는 지역별, 물류비 차이에 의한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최근 몇 년간 동일가격임을 언급 (USD100.7/ton)

- 생산 : 일부 Kiln Shutdown에도 불구하고 Capa 증가 (54.95백만→55.6백만, 2014년), 시멘트 생산 전년대비 5.8%증가(국내소비증가)한 58.1백만톤, 이중 25%는 Blended cement. → 2014년 1.3% 증가한 58.9백만톤 예상

- 내수 : 47백만톤(6.0%증가, 지진복구수요 및 재건축산업의 증가) → 2014년 2.2% 증가한 48백만톤 전망
- 수출 : 해외시장(호주, 아시아등)의 Strong order가 있으나 국내수요의 증가로 9.9% 하락한 8.76백만톤. 2014년 수출환경(엔저 및 국외수요)은 좋으나 국내수요에 집중되는 현상지속에 따라 3% 하락한 8.5백만톤 예상
- 수입 : 시멘트 약 80만톤 (한국 79%, 중국 21%), 2014년 동일예상

3. 말레이시아 (2013년 기준)

2014년 정부주도의 mega infrastructure program으로 건설경기는 매우 희망적인 상황임

- 경제동향 : GDP 5.6% → 4.7%로 감소했으나 건설부분은 10.9% 증가 (철도 및 MRT건설), 2014년 약 4.5~5.5% 경제성장 예상.
- 생산능력 : 클링커(20.29백만톤→21.69백만톤, 2014), 시멘트(32.95백만톤 →35.95백만톤, 2014)
- 생산 : 클링커(17.07백만톤→18.1백만톤, 2014), 시멘트(22.86백만톤→22.98백만톤, 2014)
- 내수 : 21.05백만톤(10.0% 증가) → 2014년 5%증가한 22.11백만톤 예상
- 수출 : 클링커(70만톤→75만톤, 2014), 시멘트(1.75백만톤→1.83백만톤, 2014)
- 수입 : 클링커(2.3백만톤→2.4백만톤, 2014), 시멘트(90만톤→96백만톤, 2014)

4. 대만 (2013년 기준)

내수의 경우 최근 몇 년간 안정세(약 12.1~12.4백만톤)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며 정부의 환경 및 광산개발규제 등으로 향후 수출 감소 예상

- 경제동향 : 경제의 큰 축을 차지하는 수출의 영향으로 1.7%의 경제성장. 중국의 부진한 수요에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 (중국 내수가 하반기에 저점을 찍고 반등 및 선진국 경제 회복)
- 건설부분의 경우 정부예산의 공공분야 배정. 유럽지역의 경제둔화에 따라 시멘트 수출을 동남아시아, 호주, 아프리카로 집중. 그러나 정부가 환경 규제에 대한 새로운 룰을 2015년부터 적용함에 따라 매년 수출량 감소 예상
- 생산 : 클링커 15.4백만톤, 시멘트 16.0백만톤이나 2014년 1/4분기의 경우 지난해보다 6%감소
- 내수 : 12.2백만톤(1.8% 증가) → 2014년 2.1%증가한 12.5백만톤 예상

5. 태국 (2013년 기준)

2014년의 경우 최근 정치 불안에 따라 경제성장 전망 조정 (당초 3~4% → 1.5~2.5%) → 시멘트 국내수요에도 악영향

- 경제동향 : 2.9% 경제성장, 건설경기의 경우 2.9% 감소 (개인소비 및 수출량감소), 농업의 경우 2.3% 성장, 서비스업종의 경우 5.4% 성장
- 생산 : 35.9백만톤(6.2%증가) → 2014년 2.4% 감소한 35.0백만톤 예상
- 내수 : 30.08백만톤(7.5%증가) → 2014년 전년 수준 예상, 방콕을 비롯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수요 및 성장이 예상되나 그밖의 지역 감소예상. 지난해 말 정치적위기가 성장을 방해
- 수출 : 8.0백만톤(클링커:2.2백만톤, 시멘트:5.8백만톤) → 2014년 국내 수요의 감소로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(클링커: 3.3백만톤, 시멘트:4.9백만톤)

6. 필리핀 (2013년 기준)

- 경제동향 : 7.2%의 높은 경제성장률 (아시아 지역에서 높은 편, 중국 7.4%, 말레이시아 6.2%), 건설업종의 경우 지진, 태풍 복구로 인해 수요 증가(11.1%) 예상.
- 내수 : 19.4백만톤(5.8%증가) → 2014년 7.1% 증가한 20.9백만톤 예상